

[국제시평]

중국—아랍국가 운명공동체 건설 가속화



2023년 5월 31일, 아랍국가연맹대표단 일행이 신강 카스 고성을 참관하고 있다. / 신화넷

“중국은 2026년에 중국에서 제2차 중국—아랍국가 정상회의를 열 것이다. 이 회의는 중국—아랍국가 관계에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습근평 주석은 5월 30일 중국—아랍국가 협력포럼 제10차 부장급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것은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이다. 습근평 주석은 또 중국—아랍국가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 방향 및 ‘5대 협력구도’ 구축 구상을 제기함으로써 중국—아랍국가 운명공동체 건설에 가속도를 내도록 추진했다.

올해는 중국—아랍국가 협력포럼이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다. 지난 20년 동안 중국—아랍국가 관계는 국제풍운의 변화를 겪으며 남남협력의 모델이 되었다. 특히 2022년 12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제1회 중국—아랍국가 정상회의가 ‘새로운 시대’를 향한 중국—아랍국가 운명공동체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이후 중국—아랍국가 협력은 더욱 공고

해지고 있다.

현재 22개 아랍국가에서 ‘일대일로’ 공동건설은 거의 20억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중국—아랍국가 실무협력의 ‘8대 공동행동’은 중요한 조기 수확을 거두었다.

세계는 지금 격동의 변혁기에 진입했다. 중국과 아랍국가는 각자의 민족 활성화를 실현하고 국가 건설을 가속화하는 발전 과제에 직면해있으며 모두 협력을 강화하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 2023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역사적 화해를 이루었으며 하마스나 팔레스타인민족해방운동(法塔赫)은 북경에서 협상을 가졌다. 이는 중국이 중동지역의 평화 발전을 진심으로 돕고 있다는 것을 아랍국가들에 보여줬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회의는 제1회 중국—아랍국가 정상회의 이후 포럼이 개최하는 첫 부장급회의로서 과거를 전송하고 미래를 여는 의미를 갖는다.

외계에서는 개막식에 바레인, 예멘, 튀니지, 아랍추장국련방 등 아랍 4개국 정상이 함께 참석한 데 주목했다. 《아랍주간신문》은 “아랍 4개국 정상의 참석은 정상이 중국—아랍국가 협력을 인솔하는 중요한 특징을 보여준다.”며 “이는 중국—아랍국가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양측의 단합된 의지와 확고한 결의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아랍국가가 <북경선언>, <중국—아랍국가 협력포럼 2024년—2026년 행동집행계획> 등 협력문서에 서명한 것은 이런 소원과 결의를 반영한 것이다.

목표와 비전이 있는 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중국은 아랍국가와 ‘8대 공동행동’을 바탕으로 보다 력동적인 혁신구도, 보다 규모있는 투자금융구도, 보다 립체적인 에너지 협력구도, 보다 균형잡힌 경제무역호혜구도, 보다 넓은 차원의 인문교류구도를 함께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5대

협력구도’의 구축은 기술, 자금, 제품 및 인력 흐름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중국과 아랍국가 인민들에게 널리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중국과 아랍국가 혁신과 금융 분야에서의 협력이 눈에 띈다. 분석가들은 중국과 아랍국가가 과학기술혁신을 우선 발전 분야로 삼고 신질생산력 협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는 것은 중국과 아랍국가를 세계 과학기술혁신의 중요한 신흥 역량으로 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을 보면 최근 몇년간 아랍국가 주권(主权) 재부기금의 중국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에너지 협력에서 중국은 전통적인 석유·가스 분야 협력과는 별도로 “중국의 에너지기업과 금융기관이 아랍국가에서 설비용량이 300만키로와트 이상인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지역 안보는 아랍국가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팔레스타인 문제는 중동 문제의 핵심이다. 5월 29일까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한 중국과 아랍국가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가자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팔레스타인 문제의 포괄적이고 공정한 항구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정의의 목소리를 냈으며 전쟁은 더 이상 무한정 계속될 수 없고 정의도 영구적으로 결석해선 안되며 <두 나라 방안>이 더구나 함부로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달했다.

“무화과나무가 다른 한 무화과나무를 쳐다보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다.” 아랍국가의 이 속담은 중국—아랍국가 실무협력의 생생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번 회의를 새 기점으로 삼아 중국과 아랍국가 양측이 실제적으로 협력을 잘 실행한다면 중국과 아랍국가의 협력은 기필코 더욱 빛나는 다음의 20년을 열 것이며 혼란스러운 세계에 안정성과 확실성을 더 많이 불어넣을 것이다. / 국제방송

중국 태양광 설비, 레바논서 인기



5월 16일—18일, 바이루트에서 열린 2024 레바논국제태양광주간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이 태양광 전시회를 참관하고 있다. / 신화넷

중국의 태양광 설비가 레바논에서 신속히 발전하고 있다.

레바논 에너지부 산하 기관인 레바논에너지절약센터의 총경리 피에르 엘 코우리는 최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레바논은 안정적인 전력 부족으로 지난 몇년간 태양·재생에너지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다.”며 “중국 태양광 수출 기업과 많은 협력을 해왔는데 이곳 대부분의 태양전지판과 배터리 모두 중국산”이라고 소개했다.

2024 레바논국제태양광주간 행사가 5월 16일 레바논 수도 바이루트에서 열렸다. 전시장에서 중국의 10여개 참가 기업이 중국산 태양전지판, 축전지, 인버터(逆变器)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고 관람객에게 다양한 태양광 해결 방안을 소개했다.

절강중철신에너지회사 해외사업부 총경리 장춘요는 레바논에는 장기적인 전력 부족이 지속되고 개인 발전기 가격이 비싸 태양광발전 설비를 찾는 수요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태양광 설비는 품질이 우수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레바논에서 각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명광신에너지테크회사 판매경리 하화봉은 레바논 고객사와 협력한 지 10년째라며 현지 시장에서 태양광에 대한 수요가 해마다 약 20% 증가했다고 말했다.

코우리 총경리는 레바논의 태양광 발전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2023년 6월 1,000메가와트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말까지의 발전량은 1,500메가와트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레바논 에너지부 부장 리드 파아드는 중국 기업은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해외시장 개척에 능하다며 이 점이 레바논에서 중요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라고 말했다.

파아드 부장은 중국이 레바논과의 태양광 분야 협력을 강화해 레바논의 더 나은 발전을 촉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신화넷

좋은 친구 · 좋은 파트너 · 좋은 형제

사진으로 보는 중국—아랍국가 협력 프로젝트



2023년 11월 27일, 중국건축그룹유한회사 심수장식유한회사의 프로젝트 경리 서소스(오른쪽)와 애급의 커튼월(幕墙) 기사 아흐메드 사이드가 애급 까히라 동쪽의 애급 신행정수도 중앙상무구 공사현장에서 함께 커튼월 설치 진도를 살펴보고 있다. / 신화넷



3월 2일, 중국측 종업원이 이라크 바그다드의 니술 립체교통중추 프로젝트 현장에서 시공작업을 하고 있다. / 신화넷

석유부터 신에너지까지

더 넓고 깊어지는 중국—중동국가 투자협력

최근 수년간 중국과 중동국가들은 경제구조의 강한 상호 보완성과 공통의 발전전략을 바탕으로 산업 및 투자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석유화학 분야에서 투자협력 확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와 중국 기업이 837억원을 투자한 화진(华锦) 아람코 정밀화학공업 및 원료공정 프로젝트가 료녕성 반금시에서 시공에 들어갔다. 사우디아라비아기초공업회사(SABIC)가 투자한, 연간 생산량이 26만톤에 달하는 폴리카보네이트(聚碳酸酯) 공장이 천진시에서 상업운영에 들어갔다.

이처럼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대기업의 대 중국 투자가 늘어나면서 중국—사우디아라비아 석유화학 협력은 하류(下游)로 꾸준히 확장되고 있다.

아람코는 2023년 대 중국 투자를 가장 많이 한 해외기업중 하나로 되었다. 아람코 관계자는 “우리는 중국 사업을 계속 확대하면서 대담하고 합리적인 장기 에너지 전략과 투자에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ABIC 수석집행관 압둘라만 알 파기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수년간 그룹의 글로벌 매출에서 SABIC 중화지역 사업의 기여률이 20%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 고품질 발전을 견지하고 있고 거대한 시장, 편리한 기반시설, 우대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부장 압둘아지즈 빈 살만(오른쪽)이 5월 6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열린 ‘박오아시아포럼 리아드회의’ 개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신화넷

정책을 갖추고 있어 SABIC는 대 중국 투자 기회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협력 다원화, ‘에너지·과학기술’이 핵심

중국—중동국가 협력은 기존 석유, 가스 무역에서 신에너지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신흥 분야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심화되고 확대되고 있다.

안영(중국) 기업자문유한회사 중동사업부 책임자 주량은 “안영이 써비스하는 중동 고객을 보면 중동 자금

은 현재 중국의 인공지능(AI)·자율주행·신에너지차 등 분야에 광범위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은행 UBS가 4월 발표한 업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국가들은 경제 다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이면서 석유산업 의존도는 낮추고 있다. 중국은 세계 1위 제조·수출 대국의 지위를 지키고 있는가 하면 5G·신에너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중동국가간 긴밀한 상호 협력으로 ‘윈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주장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추장국련방 등 국가는 일조량이 풍부해 신에너지 발전에 있어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는 인건비가 높기 때문에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펼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넓어지는 투자·협력 범위

중국 기업이 도급을 맡은 세계 최대 단일 태양광발전소가 아랍추장국련방에서 완공됐다. 지투(极兔) 택배는 아랍추장국련방,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해외기업을 위해 온라인 쇼룸을 ‘최후 1키로메터’를 개통했다. 이 밖에 화웨이 클라우드(华为云), 상탕(商汤) 과학기술 등 고과학기술기업이 중동 시장에 진출했다.

주중 아랍추장국련방대사관 상무참사관 압둘라 알노아미는 중국은 부동산·물류·창고·금융 등 분야에서 아랍추장국련방의 세번째로 큰 투자국이 됐다고 전했다.

비야디(BYD) 중동·아프리카 자동차판매사업부 총경리 황지학은 “사우디아라비아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수도 리아드의 전기차 비중이 최소 30%에 달하게 된다.”며 “비야디는 현지 위탁판매업체와 함께 신에너지차산업의 급속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신화넷